

거짓된 휴전 속 계속되는 가자 학살 인종청소 멈춰라! 이스라엘과 관계 단절하라!

가자지구의 휴전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유엔 구호기구는 최근 이스라엘이 폭격을 강화하며 피난민이 밀집한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더욱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전역에서 정착촌을 확장하며 폭력을 일삼고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엔 독립 국제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인종학살의 핵심 수단으로 팔레스타인 아동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입니다.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숨진 아동은 최소 2만 179명에 달합니다(전체 사망자의 30퍼센트). 의료·교육·보건 등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의도적 파괴는 아동의 생존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아병원 공격과 저체온증 등으로 신생아 사망이 잇따르고 있으며, 학교 대부분이 파괴돼 66만 8,000명 이상의 아동이 배움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극심한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 사망자도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병원을 표적 삼은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 카말아드와 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후삼 아부 사피야 병원장을 정식 기소도 하지 않고서 18개월째 구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를 포함해 950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에 구금돼, 비인간적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3월 이스라엘 의회는 팔레스타인 구금자 사형 집행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식민 점령

의 인질인 팔레스타인인 구금자들이 즉각 풀려나야 합니다.

트럼프의 전쟁에 반대한다

이러한 만행은 미국 정부의 확고한 지원 아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폐기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열흘 넘게 공습하자, 이란 역시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전 카드를 검토하며 한국 정부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고 언론이 보도한 가운데, 이스라엘 역시 전쟁에 다시 뛰어들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전쟁과 학살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며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정부는 학살 국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트럼프의 전쟁에 어떤 협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종청소와 점령,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와 정의를 바라는 여러분, 함께 힘을 모읍시다!

131차 연대 집회·행진

○ 일시: 8월 22일(토) 오후 4시

○ 장소: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웹사이트 ▶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The Genocide in Gaza Continues Amid a Sham Ceasefire

Stop the Ethnic Cleansing! Cut Ties with Israel!

The ceasefire in Gaza is nothing but a façade.

The UN's relief agency at headquarters recently stated that Israel is stepping up its bombing campaign and attacking civilian facilities where refugees are concentrated. As a result, residents' lives are becoming even more devastating. Moreover, Israel is expanding settlements in both Gaza and the West Bank, intensifying violence and expanding occupation.

According to the UN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the Israeli military deliberately targeted Palestinian children as a core means of genocide in Gaza. This is a clear war crime against humanity. In the two years since October 2023, at least 20,179 children have died in Gaza (30 percent of all deaths). The deliberate destruction of medical, educational, and other social infrastructure poses an extreme threat to children's survival. Newborn deaths have followed one after another due to attacks on pediatric hospitals and hypothermia, and with most school buildings destroyed, more than 668,000 children have lost access to education. Severe famine is causing a growing number of deaths from malnutrition.

Meanwhile, Israel, which has targeted hospitals, has been detaining Dr. Hussam Abu Safiya, the pediatrician and director of Kamal Adwan Hospital in northern Gaza, for 18 months without formal charges. Currently, more than 9,500 Palestinians, including children, are being detained by Israel and subjected to inhumane treatment. Moreover, this past March, the Israeli Knesset approved a bill that would make it easier to carry out death sentences

against Palestinian detainees. Palestinian detainees, held hostage by colonial occupation,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These atrocities continue with the unwavering support of the U.S. government. The recent collapse of the US-Ira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has renewed instability. The US carried out airstrikes on Iran for more than ten days, and Iran in turn attacked US military bases across the Middle East. US President Trump is reportedly weighing options for further escalation and is said to have reques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dispatch warships. Israel, too, is preparing to re-enter the war.

The Korean government must never take part in this war and genocide. Korea has continued to export weapons to Israel and maintain cooperation with i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sever ties with Israel, a state committing genocide, and must refuse any cooperation with Trump's war.

It is now time to speak out and take action to put an end to ethnic cleansing, occupation and war. To all who wish for peace and justice — let us join forces together!

131st Solidarity Protest & March

- Date/Time: Saturday, August 22, 4PM
- Location: In front of Kyobo Book Centre, Gwanghwamun, Seoul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Fundraising account
Shinhan Bank 110-173-517650 (최영준)

Fund will be used for Palestine
solidarity activities

website ▶



Contact: people.freepalestine@gmail.com